

KOCHAM 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4년 7월 28일(월)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- 1) 주간 신규주택판매, 3개월 만에 최저치
- 2) 마켓 제조업 PMI, 3개월 만에 최저
- 3) 6월 중 내구재주문 예상 상회, 설비투자 지표도 호조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 글로벌기업들, 상반기 국외 IPO 전년동기대비 2배 증가
- 2) 중국, 해외 M&A 급증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 말레이시아 에어라인, 브랜드명 교체 검토
- 2) 중국 맥도날드, '육류 버거' 판매 중단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1) 주간 신규주택판매, 3개월 만에 최저

- 지난 24일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신규주택판매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며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
 - 6월 중 신규주택판매 건수는 전월비 8.1% 감소한 연율 40만 6천건으로, 이는 시장 전문가 예상치 47만 5천건을 하회하는 결과
- 또한, 5월 중 신규주택판매 건수는 당초 50만 4천건으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, 44만 2천건으로 대폭 하향 조정됨
- 이에 따라,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 판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 - 전문가들은 아직 주택담보대출 충족 조건이 엄격하여 신용이 손상된 상태라면 주택 구입이 매우 어렵거나 필요한 자금이 보다 커지게 되는 등 주택시장 활성화의 최대 위협요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

2) 마켓 제조업 PMI, 3개월 만에 최저

- 지난 24일 시장조사업체 마킷은 미국의 7월 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 예비치가 56.3을 기록,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
 - 이는 약 4년 만에 최고치였던 전월 확정치 57.3와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문가 예상치인 57.5를 모두 하회하는 결과
- 또한, 7월 중 미국 제조업 PMI 세부 항목인 생산 및 고용 지수 부문도 6월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계된 바 있음

-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연퇴직이 증가하고 임금 인상 속도가 둔화됐으며, 이에 따라 생산도 감소했다고 지적

3) 6월 중 내구재주문 예상 상회, 설비투자 지표도 호조

- o 지난 25일 미 상무부는 지난 6월 중 내구재 주문이 전월비 0.7% 증가했다고 발표
 - 이는 5월의 0.9% 감소세를 보이던 것과는 대조적으로, 시장 예상치 0.5%도 상회하는 결과
- o 국방부문을 제외한 내구재 주문도 0.7% 증가, 변동성이 큰 운송부문을 제외한 주문은 전월대비 0.8% 증가한 바 있음
- o 기업 설비투자의 지표 중 하나인 핵심 자본재 주문 역시 전월대비 1.4% 증가, 이는 앞선 5월의 1.2%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한 결과임
- o 한편, 분기별 GDP 산출에 이용되는 핵심자본재 출하는 전월대비 1% 감소한 바 있음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1) 글로벌기업들, 상반기 국외 IPO 전년동기대비 2배 증가

- 지난 28일 FT는 법률회사 베이커&맥킨지가 집계한 결과 올 상반기에 해외 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총 102개사로 257억달러를 조달했다고 보도
 - 올 상반기 기업들의 해외 신규상장 규모가 전년 동기대비 약 2배 증가함
- 전문가들은 해외 IPO증가의 원인으로 각국 기업들이 자국 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서 비슷한 수준의 기업들과 경쟁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
- 하지만 해외 상장은 미국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
 - 미국에서는 올 상반기에만 27개 해외 기업이 상장해 전년동기대비 4배 더 많은 79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함
- 한편,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호주와 홍콩의 선전에 힘입어 올 상반기에 44개 해외 기업이 상장해 74억달러를 조달, 전년동기대비 32% 증가한 것으로 알려짐

2) 중국, 해외 M&A 급증

- 지난 28일 블룸버그통신은 지분투자를 포함해 중국 기업이 해외기업을 M&A한 사례는 금년 250건, 439억 달러 규모라고 보도
 - 이는 전년동기인 171건, 323억 달러보다 건수는 46%, 금액은 36% 증가한 것
-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들의 국외 M&A가 급성장한 것은 중국 내 최대 투자처인 부동산시장의 하락세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

- 또한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의 국외 매물 M&A 건수는 2012년 271건에서 지난해 335건으로 증가한 것을 지적, 향후 2년 연속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o 한편, 중국 기업의 한국 기업 M&A 사례는 올해 5건 6억6,111만달러로 알려짐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1) 말레이시아 에어라인, 브랜드명 교체 검토

- o 지난 27일 FT는 말레이시아 에어라인 관계자에 따르면, 정부 주도로 말레이시아 에어라인의 새로운 이름을 검토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
- 이는 지난 3월 여객기 실종사고에 이어 지난 18일 발생한 여객기 피격 사고 등 자국 항공사인 말레이시아 에어라인에 대한 불운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짐
- o 두 차례의 사고로 인해 말레이시아 에어라인 주가는 올들어 지금까지 29% 하락함
- o 한편, 말레이시아 에어라인의 전체 지분 가운데 69%가 말레이시아 정부 소유인 것으로 알려짐

2) 중국 맥도날드, '육류 버거' 판매 중단

- o 지난 28일 WSJ은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 원자재 파문 여파로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의 맥도날드에서는 소비자들이 당분간 육류 버거를 먹을 수 없게 됐다고 발표
- 상하이 지역에서는 소고기와 닭고기 제품은 불가능하고 생선과 돼지고기 제품만 주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

- o 하지만 맥도날드의 육류 버거 판매 중단 조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려지지 않음
- o 앞서 상하이푸시의 모회사인 미국 OSI 그룹은 지난 26일 상하이푸시에서 제조한 모든 제품을 회수하고 현지 경영팀을 교체한다고 밝힘
 - 상하이푸시는 중국 맥도날드를 비롯해 KFC, 피자헛, 스타벅스, 버거킹, 세븐일레븐, 파파존스 피자 등에 식재료를 공급해왔으며, 지난 20일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재포장해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바 있음